

## 보도 자료

2022년 10월 20일, 파리

베올리아, 재생 플라스틱의 새로운 글로벌 제안인 **PlastiLoop**로  
순환 경제 가속화



베올리아는 독일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서 열린 가장 권위있는 플라스틱 및 고무 무역 박람회인 **K2022**에서 새로운 **PlastiLoop** (플라스티루프) 브랜드를 론칭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제안은 베올리아의 광범위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전 세계 37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장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PET, PP, HDPE, PS, ABS, LDPE 및 PC와 같은 다양한 즉시 사용 가능한 고성능 재생 수지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재생 수지는 포장, 섬유, 농업, 가정 및 가전 제품, 자동차, 산업 및 물류, 건축 및 건설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의 생산 라인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베올리아의 제안은 고객의 요구 충족을 위해 맞춤화되었으며 폐기물 수거, 선별, 세척, 컴파운딩 및 즉시 사용 가능한 재생 폴리머 생산과 같은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밸류 체인의 전반 또는 일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폴리머의 사용으로 고객은 제품 품질에 대한 타협 없이 환경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올리아의 CEO인 에스텔 브라클리아노프 (Estelle Brachlianoff)는 "새로운 **PlastiLoop** 제안은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베올리아의 모든 기술과 상업적 전문성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가능한 최고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PlastiLoop**는 전문가와 다양한 재활용 사업장을 통해 그룹의 강점을 제공하여 재생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최상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재생 플라스틱을 선택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 플라스틱보다 최대 75%의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태 전환의 글로벌 챔피언으로서, 플라스티루프 제안을 통해 베올리아는 더 많은 재생 원료 공급라인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재생 플라스틱 분야의 구조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베올리아와 플라스틱 재활용

전 세계 37곳의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베올리아는 2021년에 약 47만6천톤의 재생 폴리머를 생산했으며 2016년 이후 전 세계 재활용 생산능력을 5배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61만톤의 재생 수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lastiLoop 공식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클릭해주세요.](#)

## 베올리아그룹

베올리아 그룹은 글로벌 환경서비스 분야에서 생태 전환의 벤치마크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20,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물, 폐기물 및 에너지 관리에 유용하고 실용적인 획기적인 솔루션을 설계 및 제공합니다. 세계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을 통해 베올리아는 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액세스를 개발하고 사용 가능한 자원을 보존하며 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베올리아는 7,900만 인구에게 식수를, 6,100만 명에게 하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4,800만 MWh의 에너지 생산 및 4,80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베올리아는 2021년에 285억 80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www.veolia.com](http://www.veolia.com)

## 연락처

---

### 글로벌 홍보 담당자

Laurent Obadia - Evgeniya Mazalova  
Mathilde Bouchoux  
[presse.groupe@veolia.com](mailto:presse.groupe@veolia.com)

### 글로벌 IR 담당자

Ronald Wasylec - Ariane de Lamaze  
Tel. + 33 1 85 57 84 76 / 84 80  
[investor-relations@veolia.com](mailto:investor-relations@veolia.com)